



# 한국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字日報 제1053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2월 2일 월요일(음력 12월 15일)



탐라국입춘굿 알리는 춘등 1일 제주시 관덕정 인근 인도에 탐라국입춘굿을 알리는 춘등이 달려 있다. 올해 입춘굿은 오늘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

## 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세

최근 10주간 전년대비 2배 ↑

제주지역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수는 최근 10주간 총 95명으로 전년 동기 47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기온 하락으로 인한 실내 접

단생활 증가로 소아·청소년층이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강력하며, 일상 환경에서도 수 일간 생존할 수 있다. 특히 한 번 감염된 후 회복되더라도 면역 유지 기간이 짧아 언제든 재감염될 수 있어 일상 속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필수적이다.

오소범기자

## 행방불명 제주4·3 희생자 찾기 본격화

지난달 과거사 정리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4·3 유족 반발하던 '한국전쟁 발굴 유해 일괄화장' 금지 타지역 형무소 수감 후 집단학살된 4·3 수형인들 많아

제주4·3 당시 다른 지역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4·3 수형인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에 대한 일괄화장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4·3 유족들은 타 지역 형무소에 수감된 후 행방불명된 4·3 수형인들이 한국전쟁 직후 전국 각 지역에서 집단학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발굴된 희생자 유해에 대해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정부가 일괄화장할 경우 영영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 정리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를 본격화한다고 30일 밝

혔다.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개정안 통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학살자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봉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대전 골령골, 경산 코발트광산, 김천형무소 등에서 발굴돼 세종시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된 유해 4000여구를 일괄화장해 합사하려는 계획을 세워 4·3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정부가 일괄화장해 합사하려는 유해에 4·3 희생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4·3 당시 제주에는 형무소가 없어 수형인들은 전국 1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3500여명이 학살돼 암매장된 경상북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진행된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

개 형무소에 분산 이감됐다.

4·3사건 추가진상보고서에 따르면 대전형무소, 대구형무소, 김천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는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023년 대전 골령골에서 발굴된 유해 중 일부가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4·3 희생자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후 경산 코발트광산에서도 처음으로 4·3 희생자 유해가 확인됐다. 대전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광산은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수천명이 집단학살돼 암매장 된 곳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월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와 협력해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4·3 희생자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방불명된 마지막 단 한 분의 유해를 끝까지 찾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또 역대 최고 기록

제주 작년 12월 기준 2030호... 한달 새 65호 늘어

감소하던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일 국토교통부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 수는 2650호로 전달 2520호보다 130호(5.2%)가 폭증했다.

2024년 11월 역대 최고치인 2851호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7월 2486호까지 줄었고 그해 8월 2621호로 증가한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12월 제주지역 분양 물량이 전혀 없었는데도 이처럼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24년 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2030호로 전달 1965호보다 65호(3.3%)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1746호로 최고치를

제주 유기·유실 반려동물 절반은 '안락사'… 4면 / 금값 폭등에 구매 손님 뚝, 금은방 '한산'… 5면

2월 한 달  
탐나는전 사용액의  
20% 적립!!!  
월 최대 14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아요~  
설 연휴 준비, 장바구니 부담은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은 든든하게!  
“탐나는전 사용”해서 제주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세요.